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로 학대피해 예방  
**산업·경제** '겨울철에도 활기찬 도시' 만드는 윈터시티 전략  
**사회·복지** 노숙자 받는 민간 임대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주택**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보 한눈에' 플랫폼사이트  
저출산·고령화 대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기타** 오픈데이터 활용 가속화...시민 참여·협업이 밑거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빈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로 학대피해 예방

범죄·불만접수 기록 등 공개...장애인 선택권·통제권 강화

호주 빅토리아주 / 사회·복지

호주 빅토리아주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호주 최초로 도입함.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범죄·불만접수 기록 등을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력 관리 규범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전담 기구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를 신설

## 배경

- 복지·돌봄 등 장애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주의회는 2016년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Parliamentary Inquiry into Abuse in Disability Services)를 작성
    - 현행 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
  -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
    - 장애인 학대는 성폭력부터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다양하며, 서비스 인력의 학대만이 아닌 장애인 간의 학대도 발생
  - 장애인 학대는 문제의 심각성과 만연한 정도가 크지만, 가해자 확인과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장애인 학대가 서비스 종사자 내부나 지역사회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음
  - 보고서는 장애인 학대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장애인 학대를 정상시키는 내외부적 문화를 근절할 것을 주창
    - 장애인 학대 근절에는 학대 감지·보고 시스템 개선과 법적 보호 강화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수이며, 보고서는 이를 위한 독립 집행기구의 창설을 제안
- 국가장애보험 시행 예정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
  - 빅토리아주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 이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인력의 수요도 현재의 19,550~23,900명 수준에서 34,400~42,000명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장애인 서비스 인력의 수요 증대에 따라 부적격자(자격 미달이나 인성·도덕성 결여 등)나 장애인 가해 경험자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공급될 위험이 커짐
- 주의회는 해당 보고서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 주의회는 2018년 ‘장애인 서비스 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Disability Worker Registration Board)를 설치

## 주요 내용

- 신설 위원회는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관리 책임을 지는 규제기관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도 시행을 관장
    - 장애인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적합한 능력·경험·자격을 가진 인력 확보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장애인 학대 보호장치 마련, 장애인의 서비스인력 선택권 강화 등의 변화 예고
- 장애인 학대·방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제 시행
  - 모든 장애인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인력 등록을 권장받으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함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는 등록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과거 클라이언트의 불만제기 기록 등을 검토 후 등록
    - 긍정적(Positive) 등록과 부정적(Negative) 등록으로 구분
  -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행동 규범’을 확립하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
    -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가 행동 규범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인력을 주정부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퇴출시킬 수 있음
    - 현재 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퇴출 제도를 모든 장애 서비스로 확대 적용
- 장애인의 서비스인력 선택권과 통제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직책만으로 해당 인력이 어떤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직책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직책을 받기 위한 자격과 경험 요건도 표준화

- 인증 장애치료사(Registered Disability Practitioner), 인증 장애복지사(Registered Disability Worker), 인증 장애인 활동보조사(Registered Disability Support Worker) 등
-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위의 공식직책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장애인 서비스 인력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서비스기관과 종사자의 부담 감소
  - 장애인 서비스기관의 인력 검증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
    - 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인력은 사전에 최소한의 직무 적합성 검증을 거친 인력이며, 서비스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위원회 재량으로 공식적 직책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 경험만으로 인증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음
- 장애인 서비스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평가해 부적합한 인력의 양성을 예방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은 취득경로가 다양하고, 일부 사설 교육기관은 공공 교육기관과 교과과정이나 교육 수준이 달라 문제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수요 급증과 교육기관 간의 학생 유치 경쟁에 따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는 관련 인력 양성기관을 평가·사정할 권한을 가짐
    -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https://www.premier.vic.gov.au/new-standards-to-keep-people-living-with-a-disability-safe/>

<https://www.vic.gov.au/ndis/registration-and-accreditation-scheme-for-victoria-s-disability-workforce.html>

[https://www.parliament.vic.gov.au/file\\_uploads/FCDC\\_-\\_Inquiry\\_into\\_abuse\\_in\\_disability\\_services\\_HtW37zgf.pdf](https://www.parliament.vic.gov.au/file_uploads/FCDC_-_Inquiry_into_abuse_in_disability_services_HtW37zgf.pdf)

# ‘겨울철에도 활기찬 도시’ 만드는 윈터시티 전략

캐나다 에드먼턴시 / 산업·경제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길고 추운 겨울로 1년 중 1/3이 시민 활동이 둔화되어 도시 경기침체나 시민 정신건강 악화 등이 우려됨. 이에 시정부는 일찍이 2011년부터 ‘윈터시티’(WinterCity)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도시디자인·비즈니스·마케팅·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주민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설립해 겨울철에도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

## 배경

- 겨울철 시민의 활동 저하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할 전략을 마련
  - 에드먼턴처럼 인구 백만 명이 넘는 도시는 1/4 분기를 무시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함
  - 시민이 혹한기에 옥외 활동을 꺼리게 되면 소매 및 서비스 산업은 위축되고 사회적인 상호 작용이 부족하여 정신건강 문제도 대두됨
  - 시정부는 2011년 윈터시티 프로젝트팀을 창설하고, 노르웨이·핀란드 등에 특별 전담반을 파견해 스칸디나비아 도시가 가장 추운 달을 보내는 법을 파악

## 개요: 윈터시티 전략

- 겨울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1년 내내 활기찬 도시를 만들 것
  - 겨울을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 장벽을 제거
    - 겨울철 대비용 인프라가 없는 그늘지고 바람이 많이 드는 공공장소의 개발 등
  - 윈터시티 전략은 초기부터 에드먼턴 시민이 북부의 도시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며, 더 근본적이고 집단적인 변화를 추구
    - 겨울철을 춥고 어둡고 움츠러드는 시기가 아닌,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기로 인식해야 할 필요
    - 단순히 겨울철에 많은 행사를 여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유지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모델이 변화해야 함을 인지
- 윈터시티 전략은 겨울철 대비 인프라부터 경제·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측면을 포괄

- 4개의 주요 영역과 10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
  - 겨울철 생활
    - 목표 1: 더 많은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
    - 목표 2: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겨울 교통 개선
  - 겨울 디자인
    - 목표 3: 겨울철 안전과 쾌적함을 위한 설계
    - 목표 4: 재미·활동·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시 디자인 요소의 통합
  - 겨울철 경제
    - 목표 5: 겨울 축제의 수용력과 지속 가능성 증대
    - 목표 6: 겨울 야외 식당 문화 개발
    - 목표 7: 혁신적인 겨울 관련 산업 발굴
  - 겨울 이야기
    - 목표 8: 추운 기후에서 일상을 포용하고 겨울을 기쁘게 맞이
    - 목표 9: 에드먼턴의 장대한 북부지역 이야기를 지역적·국제적으로 홍보
    - 목표 10: 윈터시티 전략의 시작과 이행

##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실버 스케이팅(Silver Skate) 축제
  - 네덜란드의 겨울 전통에 뿌리를 둔 축제로, 스케이팅·문화예술·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에드먼턴에서 가장 긴 겨울 축제로, 1991년부터 시작
  - 주간 프로그램: Fatbike Fest(겨울용 자전거 축제), Snowshoe 경기, 겨울 철인 3종 경기, 천막 체험, 헬기 투어, 조깅, 겨울 Frisbee(윈반던지기), 하이킹, 스피드 스케이팅, 어린이 놀이공원, 가족 크로스컨트리
  - 야간 프로그램: 전통체험, 눈조각, 불조각(캠프파이어용 나무를 예술적으로 쌓는 이벤트), 겨울극장, 음악공연, Spirit on Ice(소량의 주류와 안주가 준비된 파티)



[사진 1] 실버 스케이팅 주간 행사 중 하나인 Fatbike 참가자

- 빅토리아 공원의 3.5km 스케이트 트랙
  - ‘Edmonton Freezeway’로 불리는 빅토리아 공원을 통과하는 길이 400m의 스케이트장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조경·건축학과에서 수학 중이었던 에드먼턴 출신 맷 깁스(Matt Gibbs) 교수의 석사 논문으로 시작되었음
    - 시범 운영을 거쳐 최대 3.5km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겨울철 운송도로 사용할 예정
- 공휴일 창문 꾸미기 콘테스트
  - 도심 사무실들의 창문을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이 평가하여 우승자를 선발하는 콘테스트로 11월부터 주기적으로 시행
- 동물원 조명 축제
  - 겨울철에 운영하지 않는 동물원을 각종 조명으로 장식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Flying Canoe Volant
  - 유럽에서 이주해 온 프랑스인과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을 담은 민속 축제로, 대규모 눈싸움 경기를 상기시키는 보트 경주를 함
    - 클라우드소싱 캠페인에서 제안된 2014년 에드먼턴 역사상 가장 큰 눈싸움에 수천 명이 참가
- 음식점의 겨울철 안뜰(Patio) 사용
  - 요식업 활성화를 위해 야외 객석 사용이 어려운 겨울철의 안뜰을 적극 활용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
    - 시는 겨울철 안뜰을 운영하는 업소의 위치를 홍보하며 고객 유치를 도움



[사진 2] 겨울철 안뜰 사용 예



○ 윈터시티 디자인 가이드라인

- 에드먼턴의 겨울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종 건축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바람, 특히 하강풍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
  - 건물의 방향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햇빛 노출을 극대화
  - 활기를 줄 수 있는 색을 적극 사용하고, 햇빛이 있는 동안 시각적인 관심을 불러오기 위하여 빛의 강도·확산·명암·색상을 고려

<https://www.wintercityedmonton.ca/>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WinterCityEventsGuide2018.pdf](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WinterCityEventsGuide2018.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interCityDesignGuidelines\\_draft.pdf](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interCityDesignGuidelines_draft.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all-season-patio-design-tips.pdf](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all-season-patio-design-tips.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COE\\_WinterCity\\_Evaluation\\_Report\\_FINAL.pdf](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COE_WinterCity_Evaluation_Report_FINAL.pdf)

<https://www.citylab.com/solutions/2016/01/how-edmonton-is-making-winter-great-again/424146/>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 노숙자 받는 민간 임대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영국 버밍엄시 / 사회·복지

영국 버밍엄시는 최근 노숙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주거비 상승에 따른 거주공간 상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함. 노숙자 등의 취약계층과 계약을 맺은 민간 임대주택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는 물론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서까지 제공하여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 배경

- 노숙자가 증가했지만,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버밍엄시는 지난 몇 년간 주거공간을 잃고 노숙자가 되는 주민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버밍엄 주택임대료의 높은 상승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하지만, 버밍엄시뿐 아니라 영국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주거비 상승이 심각해 노숙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시는 이러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앙정부의 기금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를 이용해 민간 임대주택 분야와 협업을 진행할 계획

## 주요 내용

- 노숙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 중앙정부에서 유치한 기금 중 34만 파운드(5억 1천만 원)를 투입해 전환보험(Transition Insurance)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민간 임대주택의 집주인이 시에 등록된 사회주택 대상자(취약계층)와 12개월 동안 확정 임대계약을 맺으면, 시정부가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제공
  - 집주인은 인센티브와 함께 집세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확보와 지속(Secure and Sustain) 프로그램
  - 시는 위와 같은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37만 1천 파운드(5억 5,600만 원)의 기금으로 '확보와 지속' 프로그램을 시행

- ‘확보’단계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민간 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
  - 인센티브는 시와 ‘집주인 포럼’(Landlords Forum)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며, 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6만 파운드(9천만 원)의 재정을 마련
  - 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양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막는 효과
- 두 번째 ‘지속’ 단계는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이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시정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세입자의 불합리한 퇴거·계약종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지원을 제공
  - 계약 분쟁 발생 시 채무 자문이나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입자마다 단일한 연락 창구를 지정하여 편의를 향상
- 우선 목표는 2020년 3월까지 150채의 민간 임대주택을 노숙자나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것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395/birmingham\\_receives\\_711000\\_to\\_work\\_with\\_landlords\\_to\\_tackle\\_homelessness](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395/birmingham_receives_711000_to_work_with_landlords_to_tackle_homelessness)

<https://www.bbc.com/news/uk-england-birmingham-47072844>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보 한눈에’ 플랫폼사이트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보르도市는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노후주택의 거주자에게 현재 주택의 에너지효율 정보와 리노베이션 필요성부터 개선공사 시행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

## 배경

- 시 전체 주택 중 60%가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
  - 현재 보르도광역시를 이루는 35만 개 주택 중 60%에 해당하는 21만 개 주택이 총체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보르도시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 시정부는 현재 ‘에너지 제로’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 방안(태양열 발전 등)을 모색하는 ‘에너지 플러스’ 정책을 추진 중
- 매년 약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를 지원할 계획
  - 시민참여로 수립한 2050년 보르도 비전(※ 436호 참조)에 따라 시행
    - 지금까지 2천여 가구의 개선공사 지원

## 주요 내용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 개설
  - 보르도광역시 리노베이션 플랫폼(Ma Renov Bordeaux Metropole) 사이트
    - ‘보르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보르도광역시 에너지·기후 지역사무소’가 주관하고 ‘누벨아키텐(보르도가 속한 지방) 환경·에너지절약 사무소’가 후원
-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
  - 건축된 지 15년이 넘는 단독·공동주택의 거주자(세입자 포함)나 소유자로 연 소득 신고액이 8만 유로(1억 원) 이하인 사람
- 개선공사의 필요성 진단과 공사 보조금 지원 등을 무료로 안내

- 신청자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주택의 에너지효율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 소비내역을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알 수 있음
- 필요한 공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표 1] 보르도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보조금

	일반자재 사용	천연재료 사용	가스난방 설치	목재난방 설치
벽·바닥·지붕 중 1곳의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최대 1,000유로(13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15% 이내, 최대 1,500유로(195만 원) 지원	200유로(26만 원) 추가 지원	3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벽·바닥·지붕 중 2곳의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 최대 2000유로(26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25% 이내, 최대 2,500유로(325만 원) 지원	3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4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벽·바닥·지붕 전체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30% 이내, 최대 3000유로(39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35% 이내, 최대 3,500유로(455만 원) 지원	500유로(65만 원) 추가 지원	500유로(65만 원) 추가 지원
환기설비 설치	500유로(65만 원) 지원			
태양광 패널 등 태양에너지 활용 설비 설치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 최대 2,000유로(260만 원) 지원			

- 전문가 연계, 지원금 중복 제공 가능 등 부가적 혜택도 제공
  -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계서비스 제공
  - 특정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사 종류를 추가할 계획
  - 위 지원금은 다른 기관의 지원혜택과 중복 제공이 가능

## 시사점

-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노후한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실행
  - 오래된 집을 허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큼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uvelle-aquitaine/gironde/bordeaux/bordeaux-application-vous-aider-renover-votre-logement-1383947.html>

<http://marenov.bordeaux-metropole.fr/mon-logement/thermographie-aerienne/>

<http://marenov.bordeaux-metropole.fr/>

# 저출산·고령화 대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일본 교토市 / 도시계획·주택

일본 교토市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문화·관광 도시, 제조 중심 도시,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등의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목표

## 배경

- 교토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비전을 명확히 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시 만들기를 진행
  -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시의 ‘지속’, ‘독자성’, ‘경영’을 중시
  - 시민의 편안한 삶과 도시 활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의 토지 이용 관점인 ‘보전·재생·창조’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
- 이에 따라, ‘교토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계획’(京都市持続可能な都市構築プラン)을 수립
  -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교토시의 특징으로는 고밀도 시가지를 갖춘 대도시, 휴먼 스케일(Human Scale) 마을, 제조 중심의 도시, 국제 문화 관광 도시, 대학도시,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가 있음
    - 시의 기본 과제는 인구감소나 저출산·고령화 진행, 20·30대 젊은 층의 시외 유출, 사업공간 부족, 시내에서 일하는 시민 감소, 문화·지역 커뮤니티 유지 등

## 주요 내용

- 주요 목표는 1,200년 이상을 이어온 역사·문화·자연환경·관광자원 등이 곳곳에 존재하는 교토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계획의 주요 역할은 ‘마을 만들기 지침’을 수립하여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나아가 교토의 오랜 역사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승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도시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
- 기본 콘셉트
  - 역사·문화·자연환경·관광·대학도시 등 교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마을 만들기로 교토 브랜드성 확보
  -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 전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마을 만들기
  - 사람의 활동을 중시하는 마을 만들기
- 기본 방침
  - 도심부와 주변부 거점 지역의 매력·활력 향상
  -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확보
  -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 교토만의 문화 승계와 창조
  - 지역의 생활·문화·산업 승계와 진흥
- 계획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업자·행정이 도시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함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때문에,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와 지역의 미래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토지 이용 유도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행
    - 시의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규정된 ‘마을 만들기 방침’에 이 계획을 포함하고, 시민·사업자·행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
    - 금융지원이나 세제 우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계획수법 등을 활용
    - 관계계획 등과의 연계
- 계획의 대상 범위는 시 전체이며, 목표 기한은 2040년
  -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 20년 후인 204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
  - 이 계획은 5년마다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함

<https://www.city.kyoto.lg.jp/tokei/page/0000249502.html>

[https://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249/249502/02\\_jizokuplan\\_gaiyou.pdf](https://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249/249502/02_jizokuplan_gaiyou.pdf)

# 오픈데이터 활용 가속화…시민참여·협업이 밑거름

캐나다 토론토시 / 정보·기타

캐나다 토론토시는 다년간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오픈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오픈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한 공개로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업을 끌어내고 있음

## 개요

-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열린 정부 정책,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얻다
  - 시정부는 2011년부터 열린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공개의 전략·정책·기준 등을 수립
  - 다양한 그룹과 함께 토론하며 대중의 동의 속에 오픈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
    - 소통을 바탕으로 한 오픈데이터 정책은 많은 시민의 실제적 참여를 이끌어 냈고, 시정부가 시민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 또한, 다양한 기술과 사회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도 확인



[그림 1] 토론토시 열린 정부 웹사이트 이미지

## 과정

- 열린 정부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오픈데이터 접근성 강화 정책 밑그림을 구상
  - 토론토시 열린 정부 위원회는 2011년 만들어졌으며, 도시 행정의 전 부문에서 선출된 경력직 매니저로 구성
    - 2013~2016년 매해 6~7회의 어젠다 회의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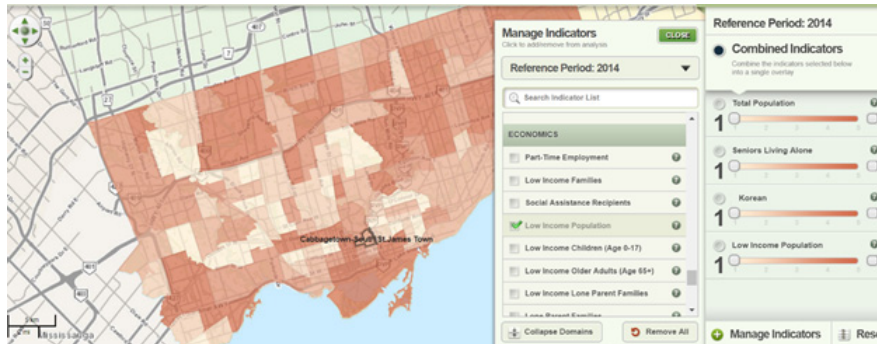
- 시민·학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 진행
  - 정부 접근성에 관한 시민인식, 데이터 공개의 장단점 등을 조사하고 토론
- 시 단위의 오픈데이터 공개 정책과 주정부나 다른 도시의 데이터 공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논의
  - 토론토시뿐 아니라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와 함께 '범캐나다 공공 부문 열린 정부 실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워크숍·콘퍼런스 등을 진행

## 주요 내용

- 시민 실생활에 연관된 다양한 오픈데이터 공개
  - 도시 관광 정보(City Guide Toronto), 공유자전거 현황(Cycle Now), 쓰레기 수거 스케줄(Mr.Bib), 토론토 인근 해변 수질(Toronto Beaches) 등
    -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향상시키는 물론 여러 도시 문제 해결의 효율성 강화에 이바지
  - 다양한 형식과 포맷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임
    - 모바일과 웹의 2가지 포맷에 맞춰 도식화된 버전과 음성지원 버전을 지원
    - CSV, XML, JSON, Shapefiles, API 등 데이터 활용이 편리한 포맷으로 제공
    - 시민이 직접 원하는 데이터세트(Dataset)를 이메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 토론토 인구 통계(Toronto Demographic)
  - 토론토시의 구역별 인구구성, 소득·교육 수준, 언어별 사용비율, 인종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인구조사 데이터 공개
    - 시 전체를 4개 지방의회(Community Council), 23개 행정구역(Ward), 140개 지역(Neighborhoods)으로 구분하여 제공
    -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 분석 결과와 관련 연구데이터 등도 함께 서비스
- 토론토 정책 서비스 현황 포털(Toronto Progress Portal)
  - 토론토시 정책 서비스의 동향과 방향을 보여주는 포털로, 각종 공공서비스의 주요 지표별 실적과 분석 데이터를 제시
    - 푸드뱅크 이용자, 개인 파산자, 노숙자 쉼터 이용률, 범죄 유형별 발생빈도, 실업률 동향,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이용률, 분야별 세금 등의 자료

○ 웰빙 토론토(Wellbeing Toronto) 지도

- 지도에서 거주지역의 인구구성, 주민의 평균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범죄율 등의 지표를 지정하면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표시
  -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도 가능



[그림 2] 웰빙 토론토 지도 화면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accountability-operations-customer-service/get-involved-how-government-works/open-government/>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accountability-operations-customer-service/get-involved-how-government-works/open-government/open-government-initiatives/>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 세계도시동향 제454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4월 15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